

<특 집 I>

기업과 도서관의 행복한 만남, 기부문화



백 호승*

1. 도서관 장서확충의 대안

A 건설 - 1,000만원, B백화점 - 500만원, C은행 - 도서 2,000권, 기타 우리 고장출신 재미교포 이 아 무개의 5인 - 2,000만원, 도서 1,500권 이것은 어느 도서관의 2010년 기부금 수익현황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여 평생동안 자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그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도 운영실태가 부실할 뿐 아니라 재정투자가 미흡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은 그 기본성격으로 볼 때 지식과 정보의 활발한 유통과 이를 활용한 지식과 정보, 재화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서비스 중심기관이기에 재원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전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정부예산 외의 다른 자금원을 찾으려는 도서관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운용보다 비교적 그 운용이 자유로운 대체 자금원에 대한 필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대체 자금원은 바로 기부라 할 수 있다.

기부는 대체 자금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도서관에 지역사회의 민간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요즘 기업들은 문화

*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 사서, hsback@naver.com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메세나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도서관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도서관의 부족한 장서확충과 좋은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 메세나운동과 도서관 기부운동

기업에서 시장을 개척하려 할 때 사람들의 문화적 감성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아무리 좋은 기업 이미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감성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뮤지컬, 공연 후원 등을 활용한 메세나 마케팅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메세나 운동은 이렇듯 기업들의 조건 없는 문화지원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자선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업 경영환경 급변,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와 직면하면서 그 의미와 개념도 크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메세나 활동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존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예술 이미지를 활용해 기업 브랜드를 제고하는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따른 아이디어로 기업이 도서관에 부족한 책을 기부해 주는 활동을 적극 펼쳐 범국민독서운동에 앞장 서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통한 도서기부운동 전개는 과거의 스폰서나 협찬이 아닌 1사 1도서관, 나아가 문화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기업으로서는 좋은 회사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기업과 연계한 기부운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먼저 도서관 기부운동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배경, 방법, 절차, 기부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하여 이를 각종 언론매체와 기업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지역연고 주요인사, 해외동포에 이메일 또는 서한문도 발송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부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과 기업홍보를 위한 별도서거나 홍보코너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업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미래 도서관의 블루오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기부에 의한 도서관건립과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같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용자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는 반면, 도서관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 즉 기업의 참여 유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들은 기부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 우리 도서관의 핵심 블루오션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